

2021년은 기후행동의 성패가 달린 해

2021.04.20.자 WMO 기사
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



“2021년은 기후행동의 해여야 합니다. 그것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.”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 상황과 그 영향 악화를 강조한 WMO의 '세계기후 2020' 보고서 출판 기념회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같이 말했다.

“섬뜩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.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.”고 구테흐스씨는 기자들에게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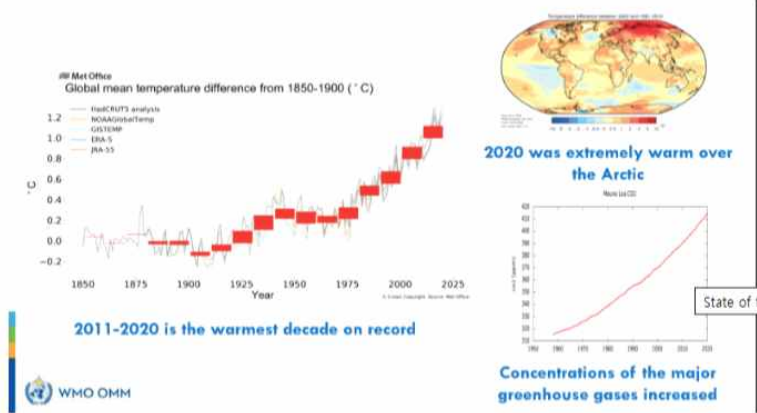
“이 보고서는 2020년이 또 다시 전례 없는 기상이변과 기후 재난으로 점철된 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원인은 분명합니다. 인간의 행동, 인간의 결정,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기후가 붕괴된 즉 인위적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.”라고 그는 말했다.

구테흐스 사무총장은 WMO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가 주관한 이 WMO 간판 보고서 발표장에 함께 하였다. 이 보고서는 국가기상당국, UN 파트너, 광범위한 기후 과학 공동체가 동참하여 작성된 것이다.

보고서에는 기록적인 온실가스 농도, 상승하는 육상 및 해양 온도, 해수면 상승, 빙하 용해 및 빙하 퇴각, 극한 날씨 등 주요 기후 지표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스토리맵이 포함되어 있다. 그것은 또한 사회 경제적 발전, 이주와 이동, 식량 안보, 육지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.

<WMO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 박사의 말>

“이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주요 기후 지표 및 관련 영향 정보를 보면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, 극단적인 현상의 발생 및 심화, 그리고 사람들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실과 피해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”



“따라서 적응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적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조기 경보 서비스와 기상 관측 네트워크 및 수문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“

2020년은 라니냐의 냉각에도 불구하고,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였다.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(1850-1900) 수준보다 1.2°C 높았다. 2015년 이후 6년간은 기록상 가장 따뜻했고, 2011~202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이였다.

<유엔 사무총장의 말>

“우리의 도전은 분명합니다“

“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, 과학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기준치인 1.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% 줄이고 2050년에는 배출량을 0%까지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“

“우리는 궤도를 벗어났습니다.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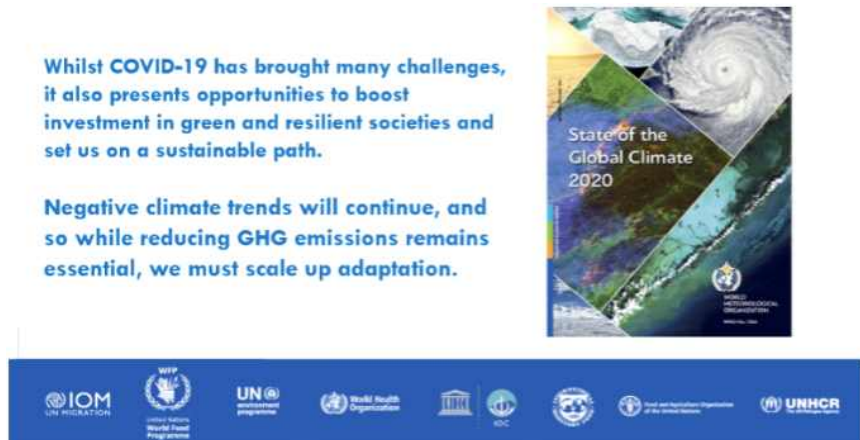
구테흐스는 올해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6차 총회 (COP26)을 앞두고 구체적인 여러 진전 사항들을 열거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모든 국가, 도시, 지역, 기업 및 금융 기관이 모두 함께 하는 배출 순제로를 향한 글로벌 연합전선을 구축기로 맹세한 점.
- 파리 협정에 따라 향후 10년은 보다 야심찬 국가적 기여와 기후 계획으로 변혁의 10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.
- 이러한 맹세는 구체적인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코로나 19 복구에 사용된 수조 달러는 파리 협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맥을 같이

해야 한다는 점.

- 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에 대한 보조금은 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. 그리고 선진국들 주도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, 그 나머지 국가에서는 204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점.
- 선진국들은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금융, 특히 연간 1,000억 달러를 출원키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. 공여자와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으로부터 나온 모든 기후 금융의 절반은 오늘날 20%에 해당하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회복력과 적응정책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.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금융 소스에 대한 접근도 더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.

“저는 우선 선진국들이 기후 금융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연간 1,000억 달러를 제공키로 한 약속에 기대가 큼니다. 이것이 이뤄진 다음 저는 G20 국가들에게 더 폭넓은 금융 구조의 녹색화를 취하고, 부채를 해결하고, 기후와 관련된 금융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.”라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말하고 다음으로 마무리 했다.



“올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. 이 보고서는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,”